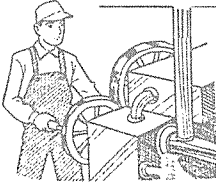


## 수공구(手工具) 안전



### 민 철 기

역사학이나 인류학에서는 우리 인류가 진화하는 과정에서 다른 유사 동물보다 앞설 수 있었던 이유 중의 하나로 유독 인간들만이 공구를 만들어서 일하는데 능률을 올릴 수 있었다는 점을 규정짓고 있는데 과연 옳은 얘기임에 틀림이 없다.

그러나 우리에게 득을 가져다 주는 일이 있으면 동시에 해(害) 또한 적지 않은 법이어서 이 연장을 잘못 선택하거나 무리하게 사용함으로써 오는 사고가 적지 않음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수공구는 사용자가 직접 손을 사용해서 작업하는 도구이기 때문에 취급을 소홀히 하면 사용자 본인은 물론이고 주위의 다른 사람에게까지 뜻하지 않은 해를 끼치거나 상해를 입히게 된다.

우리 주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것은 드라이버(-형, +형), 망치, 스패너, 렌치(wrench), 클리퍼(clipper), 프라이어, 끌, 줄, 칼, 톱 등을 들 수 있다.

수공구 때문에 일어나는 사고는 주로 공구를 잘못 선정했거나 기능이 상실된 때 또는 하자가 있는 공구를 사용했거나, 사용자가 사용법을 잘 몰랐다가, 또한 무리한 힘을 가했을 때, 순간적으로 자세가 흐트러졌을 때 발생하는데, 때로는 아주 하찮은 일로 치명적인 상해를 입히는 경우가 있다.

그 실례를 하나 들여보자. 어느 제조공장의 생산 라인에서 일어난 일이다. 작업자였던 기계정비사가 작업 테이블에 연결되어 있었던 접지선을 철거하고 새 것으로 설치하려다가 일어난 사고였는데 당시에 그 접지선은 바닥에서 약 90센치미터 높이의 테이블 모서리에 스크류 볼트에 의해서 단단히 고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기계정비사는 무릎을 구부린 채 앉은 자세로(바로 눈높이의 위치) 드라이버로 그 스크류 볼트를 풀려고 애쓰고 있었다.

이때 드라이버는 규격에 맞지 않는,

직경이 작은 것이었고 특수용도에만 사용되는 유난히 날 부분이 긴 것이었다.

무릎을 구부리고 허리를 곧바로 세운 채 두손으로 힘껏 돌리다가 하필이면 그 드라이버의 끝날이 미끄러지면서 정통으로 그의 한쪽 눈을 찌르게 되는 큰 사고를 일으키게 되었다. 책상머리에 앉아서 생각할 때에는 그러한 우연이 있을 수 있나하고 기이하게까지 여겨졌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냉엄한 현실이었고 우리 눈으로 직접 볼 수 있는 실제상황이었던 것이다.

어떻게 드라이버의 날끝이 180° 회전해서 그것도 하필이면 눈동자 한가운데를 찌를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은, 확률의 상식에만 의존하는 일반사람에게는 불가사의한 일로 여겨질지 모르겠으나 사고의 현장에서는 가끔 일어나는 일이다.

사고 후에 그 정비사는 공구가 적합치 않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일을 빨리 끝내기 위해서 사용하게 되었다고 진술했다.

그 피해자는 그후 최고급의 의료시술을 받으면서 모든 노력을 경주했으나 끝내 결혼도 하지 못한 나이에 눈 하나를 실명시키고 말았다. 단 한번의 잘못된 공구선택이 이러한 엄청난 비극까지 불러일으키리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을 것이다.

정비작업 시에는 반드시 안전안경을 착용하라는 안전수칙을 따르기만 했어도 그 사고는 방지될 수 있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눈을 찌르기에 앞서 안경의 렌즈를 깨고 빗나갔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 사고 말고도 좁은 공간에서 렌치로 녹슨 볼트를 풀려고 과도하게 힘을 주다가 허리를 다친 예 등 허다한 사고사례를, 연장을 잘못 다루는데서 찾아볼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 산업계에서는 이 수공구의 취급이 등한시되고 있다고 좋지 않은 평판을 들어오기가 일쑤인데, 우리 다 같이 반성해야 할 점으로 생각된다.

수공구 관리를 잘못하면 공구의 수명에도 영향을 줌은 물론 이는 바로 사고 발생에 직접적인 동기가 되기도 한다.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이 공구관리는 반드시 필요하다. 정기적으로 검사를 실시해서 심하게 마멸된 공구는 아예 사용할 수 없도록 폐기처분한다거나 해서 이것 때문에 일어날지도 모르는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것이다. 헐거워진 망치 자루를 잘못 휘두르다가 셋덩어리 부분에 얻어 맞는 예는 종종 보아온다.

가정에서도 예를 찾는다면 부엌칼 같은 것은 늘 잘 들도록 갈아서 사용해야겠다. “무딘 칼에 손베다”는 말은 모든 공구 관리에 도움이 되는 으뜸 말이다. 왜냐하면 잘 듣지 않는 연장은 필요 이상으로 힘을 주게 되고 이 반작용으로 무리한 힘이 가해지게 되며, 이것이 곧 바로 사고를 불러 일으키기 때문이다. ㉔

〈안전 전문가〉